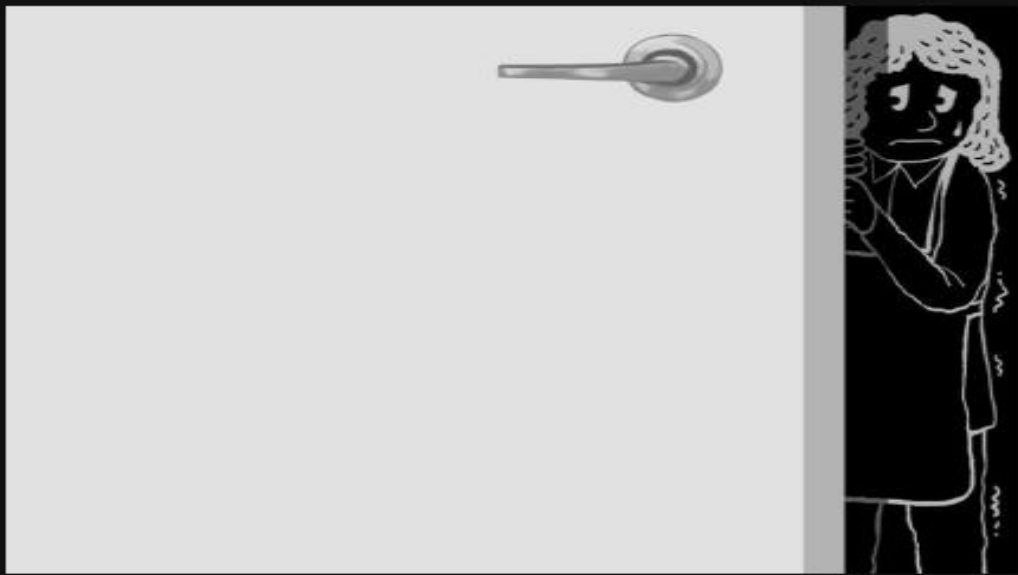


---

“똑똑(DOK DOK)”  
2018

# 독도

---



## R E P O R T

동아리 명	똑똑(DOK DOK)
참여 학생	김수정 김예슬 현가영 김태훈 김원민
주제	독도
목적	독도 지식 확립 독도 알리기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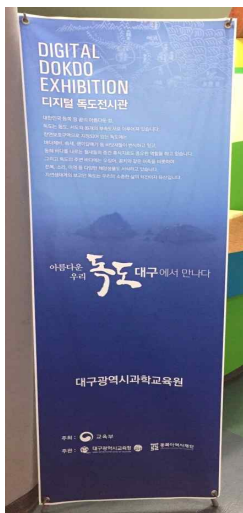
1) 대구 과학 교육원 독도 전시관 견학 보고서 .....	3,4
2) 독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토의 록 .....	5
3) 독도 민간인 출입에 대한 토론회 .....	6,7
4)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회 .....	8
5) 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가 웅은가에 대한 토론회 .....	9
6) 독도 소유권에 대한 토론회 .....	10
7) 한국어 연설문 .....	11
8) 영어 연설문 .....	12, 13, 14
9) 일본어 연설문 .....	15, 16, 17, 18
10) 노래 악보 .....	19, 20
11) 영남대학교 독도 연구소 견학 보고서 .....	21
12) 영남대학교 독도 연구소 교수님 인터뷰 .....	22
13) 독도 배지 보고서 .....	23
14) 독도 배지 나눔 전단지 .....	24
15) 독도 인식 설문조사 통계자료 .....	25
16) 팸플렛 제작 보고서 .....	26
17) 팸플렛 이미지 .....	27
18) 동해와 일본해 명칭 표기에 대한 토의 록 .....	28, 29
19) 동해 주민 인터뷰 .....	30
20) 활동사진 .....	31, 32

## «6/9 대구 과학 교육원 독도 전시관 관람 후기»



▲ 사진촬영 김태훈(사진을 찍기 위해 부득이 하게 사진에서 제외됨) 작성자: 현가영

★ 김수정 : 100일간 독도 활동을 계획하게 되면서 독도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독도에 직접 가는 것은 시험기간이 겹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독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같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대구 내에 독도전시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구 과학 교육원 내에 있는 독도 전시관을 견학하게 되었다. 독도 전시관은 디지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독도의 역사, 독도 사진과 더불어 독도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일제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되어버린 독도의 마스코트 강치에 대한 이야기 등 독도의 생태를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이번 관람을 통해 독도에 대한 지식을 좀 더 폭넓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 기억 속에 잊힌 강치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속의 울림이 되어 자리 잡은 것 같았다. 이러한 독도 전시관 견학을 통해 얻은 정보를 100일간 독도 활동을 통해 드러내고 내가 이 견학을 통해 알게 되었듯이 사람들도 우리의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증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생긴 견학 이었던 것 같다.

★ 김예슬 :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대구 과학 교육원에 다녀왔다. 독도와 관련된 전시관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도프로젝트 진행의 전체적인 틀을 잡고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조사해보고 싶은 점은 독도에 일반 시민이 거주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독도의 다양한 가치적 측면에 대해 접해 보니 일반 시민을 독도주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한다는 생각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 부원들과 토론토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박물관은 많이

다녀봤지만 독도에 관한 직접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처음이어서 신기했고, 이번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 김원민 : 독도 전시관에 간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표 섬인 독도와 울릉도에 가보고 싶지만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단체로 독도에 가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함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해 독도를 체험하고 독도에 대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 가게 되었다.



이곳에는 실제 독도를 축소한 미니어처가 있어 사진으로만 보았던 독도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독도의 외형과 주변 바위들도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두 번째로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독도 관련 문헌들과 지도 등이 있어 과거에는 독도가 어떤 존재였으며 어떻게 다루어 졌는지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독도에 살고 있는 심해 생물부터 하늘에 사는 생물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과 설명이 잘 적혀있어 독도에 사는 생물들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영남대학교에 있는 독도 연구소를 찾아가 교수님과 질의응답도 하고 독도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길 희망한다.

★ 김태훈 : 독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많아 졌을 때,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독도전시관을 방문 하였다. 처음에는 '다른 박물관과 비슷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었으며, 동영상을 통해 독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독도의 연대표를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자료가 순서대로 정리 되어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인상 깊었다. 박물관을 관람하는 내내 독도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에게 이 박물관을 소개시켜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 현가영 : 100일 동안의 활동을 계획하면서 독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구 과학 교육원 독도전시관을 방문했다. 디지털독도 전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 체험과 더불어



독도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알아갈 수 있게 꾸며져 있었다. 독도와 관련된 기록,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 주민 생활 등 한쪽 벽면을 가득채운 독도 이야기를 보고 관련 내용으로 팸플릿을 제작해 보고 싶

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학교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 토의록

토의일시	2018년 05월 9일 16:00~17:00	동아리 명	독독	작성자	김원민
참석자	김수정, 김예슬, 김태훈, 김원민, 현가영				
토의안전	1. 독도의 가치와 역사 2. 독도 여행(관광) 및 출입				
토의내용	내용			비고	
	<p><b>독도의 가치와 역사에 대한 토의</b></p> <p><b>1. 독도의 영역적 가치</b></p> <p>(1) 독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과 관련된 중요한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주변 바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p> <p>(2) 독도는 군사적 · 전략적 요충지로 항공 및 방어 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p> <p><b>2. 독도의 경제적 가치</b></p> <p>(1) 독도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 수역으로 플랑크톤과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p> <p>(2)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물이 해저에서 높은 압력을 받아 형성된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해양 심층수 등이 해저 자원에 매장되어 있다.</p> <p><b>3. 독도의 환경-생태계적 가치</b></p> <p>(1) 독도는 여러 단계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어 다양한 암석과 지형, 지질 경관이 나타나 해저 화산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p> <p>(2) 독도는 동해를 건너는 어류와 철새의 중간 서식지이며, 토양이 척박하지만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섬 전체가 독도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p> <p><b>독도 여행(관광) 및 출입 자유화에 관한 토의</b></p> <p><b>1. 독도에 갈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있다.</b></p> <p>1년에 60일~70일 정도만 독도에 갈 수 있고 불규칙한 날씨로 인해 연기 및 취소가 자주 발생한다.</p> <p><b>2. 독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b></p> <p>옛날 정권 때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을 제정해 국민들의 독도 출입도 막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인들도 출입이 가능해졌지만 지금까지도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p>			<p>결정 사항</p> <p>■ 독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p> <p>■ 독도 출입의 자유화에 대해 → 독도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p>	

# 토론 지

토의일시	2018년 05월 09일 17:00~18:00	동아리 명	독독	작성자	김예슬
참석자	김수정, 김예슬, 김태훈, 김원민, 현가영				

토의안건	독도에 민간인 거주를 개방화해야 하는가?
------	------------------------

내용	비고
<p><b>독도 민간인 거주를 개방화해야 하는가?</b></p> <p><b>찬성 측 입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에 대한 관심증진: 민간인 거주로 인해 다양한 산업구조 발달 → 세계적인 관광지(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알릴 수 있는 토대 마련)</li> <li>▶ 국민의 권리보장: 국민은 누구나 거주와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침해 x</li> </ul> <p><b>반대 측 입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파괴 문제: 생활쓰레기 발생 가능성 多, 독도를 비롯한 주변 해양 오염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li> <li>▶ 독도의 희소적 가치 상실: 독도는 민간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니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가치있게 여겨지는 곳임. 민간인거주허락 → 일반적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여겨 독도의 가치에 대해 간과할 가능성 多</li> </ul> <p><b>반대 → 찬성 측 반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충분하다 → 실제로 독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진 시민은 몇 되지 않는다. (설문조사 결과 제출 → 설득o)</li> <li>▶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것도 국민의 또 다른 의무가 아닌가? →(찬성 측 반박) 영토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 후에 지켜져야 할 의무이다. → (반대 측 재반박) 국민이 가진 의무 중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없다(모두가 같은 위치에 있는 동등한 권리가기 때문에 찬성 측의 반론은 이에 어긋난다)</li> <li>▶ 독도에 대한 관심증가는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정확히 어떤 파장을 말하는가? → 대답 x</li> </ul> <p><b>찬성 → 반대 측 반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인 거주로 인한 환경파괴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반대 측의 지나친 우려이다. →독도에 민간인이 거주하다보면 생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 (반대 측 반박) 독도와 같은 섬 지역은 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파괴를 비롯한 생태계파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li> </ul>	<p>찬성 :김수정, 김태훈 반대 : 김예슬, 김원민 ,현가영</p>  <p>▲ 토론하는 사진</p>

▶ 독도의 희소적 가치를 따지다보면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결국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 → 인간은 누구나 흔한 것보다 희소하고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반대 측 반박) → (찬성 측 반박) 독도가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 측 반박 일부 인정)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독도를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것은 어떠한 발전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독도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독도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반대 측 반박)

**결론 : 독도 민간인 거주를 개방화해서는 안 된다.**

## 독도 민간인 거주를 개방화해야 하는가?

독도민간인 거주를 개방화했을 때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독도에 대한 관심 증진, 독도의 희소적 가치 발견가능성 多

부정적 측면: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 多, 독도의 희소적 가치 하락(가치 간과할 가능성 높아짐)

## 특이사항

독도 민간인 거주 개방화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 토론 지

토의일시	2018년 05월 24일 17:00~18:00	동아리 명	독독	작성자	김태훈
참석자	김수정, 김예슬, 김태훈, 김원민, 현가영				

토의안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하는가?
------	------------------------

	내용	비고
토의내용	<p><b>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하는가?</b></p> <p><b>찬성 측 입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li><li>▶ 외교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li></ul> <p><b>반대 측 입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가짜를 모방하는 행위이다.</li><li>▶ 대체휴일제도 실시하고 공휴일이 너무 많다.</li></ul> <p><b>반대 → 찬성 측 반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꼭 독도의 날을 정하지 않고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 → (찬성 측 반박) 자국 영토에 대한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있으면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li><li>▶ 국가에 속한 국민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다. 즉 대내외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굳이 다른 나라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li></ul> <p><b>찬성 → 반박 측 반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짜인 다케시마의 날은 있는데 진짜인 독도의 날이 없는 것은 이상하다. → (반대 측 반박) 가짜를 모방하는 나라가 되는 것보다는 낫다.</li><li>▶ 공휴일이 많은 것보다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반대 측 반박) 공휴일 제정으로 독도에 관심을 가진다는 확신이 없다. 이보다는 교육이나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더 가능성 있는 방안이다.</li></ul> <p><b>결론 :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독도에 관한 행사와 교육을 실시해야한다.</b></p>	<p>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 으로 제정해야하는가?</p> <p>찬성 - 김수정, 현가영, 김태훈, 반대 - 김예슬, 김원민</p>

	내용	결과
결정사항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 으로 제정해야하는가?	제정해야한다. +관련 행사, 교육 실시
특이사항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 으로 제정해야하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찬성 측의 입장에 추가적으로 찬성 측의 입장이 더해진 결과가 나왔다.	



# 토론 지

토의일시	2018년 05월 30일 17:00~18:00	동아리 명	독독	작성자	현가영
참석자	김수정, 김예슬, 김태훈, 김원민, 현가영				

토의안건	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가 옳은가?
------	---------------------

	내용	비고
토의내용	<b>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가 옳은가?</b>  <b>찬성 측 입안</b> ▶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적당히 유지할 수 있다. ▶ 일본의 도발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 : 일본은 독도를 국제적 주목을 받게 하여 분쟁지역화하기 위해 한국을 도발하는 것이다.  <b>반대 측 입안</b> ▶ 한국보다 외교력이 더 강한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다. ▶ 외교부가 자기영토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며 조용한 외교는 주권포기이다.  <b>반대 → 찬성 측 반박</b> ▶ 도발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국 영토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 조용한 외교로도 충분히 영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영토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인가 → 대답x ▶ 독도에 대한 내용을 다른 나라에 알려줘야 그것에 대한 사실을 다른 나라들이 알게 되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유연비어를 펴뜨릴 수 없다. → 다른 나라에 알리지 않고 자의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다.  <b>찬성 → 반박 측 반박</b> ▶ 외교력은 통계로 나타내기 힘들고 확실히 알 수 없다. → 통계로 나타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가늠은 가능하다. ▶ 조용한 외교가 주권포기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좋지 않다. ▶ 외교력과 상관없이 일본의 증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하기 어렵다. → 외교력이 있어 거짓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설득력을 지닌다는 것이 문제다.  <b>결론 : 자국 영토에 대한 조용한 외교는 있을 수 없다. → 강경 대응해야 한다.</b>	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가 옳은가? 찬성 - 김원민, 김예슬, 김수정 반대 - 현가영, 김태훈

결정사항	내용	결과
	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가 옳은가?	조용한 외교보다는 강경 대응해야한다.

특이사항	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가 옳은가? 라는 주제에서 찬성 측 입장이 반대 측 입장에 동의하게 되었다.
------	---

# 토론 지

토의일시	2018년 06월 14일 16:00~18:00	동아리 명	독독	작성자	김태훈, 현가영
참석자	김수정, 현가영, 김예슬, 김태훈, 김원민				

토의안건	독도 소유권에 대한 한국 vs 일본 간의 모의 협상 토론
------	---------------------------------

토의내용	<b>내용</b>	<b>비고</b>
	<p><b>독도 소유권에 대한 한국 vs 일본 간의 모의 협상 토론</b></p> <p><b>한국 측 입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포하였다.</li><li>▶ 세종실록지리지 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 많은 관찬 문헌에서 독도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li><li>▶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li><li>▶ 울릉도에서 87.4km, 오키섬에서는 157.5km의 거리가 있다.</li></ul> <p><b>일본 측 입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본은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li><li>▶ 일본은 다케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ex)개정 일본여지로정전도</li><li>▶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무릉1도설 :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사실은 하나의 섬인데 사람들이 착각해서 울릉도를 두 개의 이름으로 부른 것이다.</li></ul> <p><b>일본 → 한국 측 반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우산도=독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되어 있는 지도의 우산도가 독도라면 훨씬 작게 표현되어야하며 울릉도 서쪽이 아닌 동쪽에 표현되어야한다. → 대답x</li><li>▶ 독도가 직접적으로 거명되지 않았다. → (한국 측 반박) 한국의 모든 섬을 조약에 열거할 수 없어 예시를 든 것이다.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고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이다. → (일본 측 반박)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는 한반도의 최외곽 섬을 명기한 것으로, 한반도의 경계를 구분지는 것이다. → (한국 측 반박) 세 섬으로 한반도의 경계구분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반도의 최남단 섬은 마라도이다. → (일본 측 반박) 대답x</li></ul> <p><b>한국 → 일본 측 반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발표는 일본 발표보다 5년 앞선다. 또한 1905년의 발표는 일본이 러일 전쟁 수행과정에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주권을 침탈당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 대답 X</li><li>▶ 1905년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정부는 독도가 자국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ex) 1877년 태정관 지령</li><li>▶ 날이 좋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울릉도주민이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li><li>▶ 고려사,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울릉도에서 맑은 날 볼 수 있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다른 섬들은 울릉도에 극히 가까이 있어 날씨에 관계없이 보인다.</li></ul> <p><b>결론 : 독도는 한국 땅이 정당하고 맞다.</b></p>	<p>독도 소유권에 대한 주장 사회자 - 김수정 한국 - 김태훈, 김예슬 일본 - 현가영, 김원민 (단순한 옹호편이 아니라 랜덤을 통한 역할 추천)</p>

결정사항	<b>내용</b>	<b>결과</b>
	독도 소유권에 대한 한국 vs 일본	일본은 한국의 독도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특이사항	각 나라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서로 나누었다. 일본의 주장에 대한 한국 측의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 독도 연설문(한국어 버전) 작성자 :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독도지킴이 동아리 똑똑 이라 고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증거와 독도의 가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3개 국어로 제작된 이 영상을 통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알기를 바라며 독도에 대한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인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울릉도와 독도일대에 있었던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에 복속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 많은 문헌에서 독도에 대한 일관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기록들은 우리 독도의 역사이자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증거에는 앞서 이야기한 역사적 증거 뿐 만아니라 지리적인 증거, 국제법적인 증거 또한 충분합니다. 먼저 지리적인 증거로는, 울릉도는 독도와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고, 일본의 섬 중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인 오키섬은 독도와 157.5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국제법적인 증거인데,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 간 교섭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인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1905년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비롯한 일본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충분한데도 아직까지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문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독도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 수역으로 플랑크톤과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의 창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도는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는 생태계의 중심인 동시에,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 하나만을 근거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이 러일 전쟁 수행과정에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주권을 침탈당한 부득이한 상황 이었음을 간과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증거로 봤을 때도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다케시마의 날 까지 만들어가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일본은 하루빨리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실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 독도 연설본(영어 버전) 작성자 : 김원민, 김예슬

Hello, everyone. We are Dokdo protector club DokDok.

→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독도지킴이 동아리 똑똑 이라고 합니다.

Let me ask you question before get to the point.

→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How much do you know about evidence of our territory and the value of Dokdo?

→ 여러분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증거와 독도의 가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People around the world through these videos made of three languages In hopes of certain knowing we are going to start an introduction to Dokdo.

→ 3개 국어로 제작된 이 영상을 통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알기를 바라며 독도에 대한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our cultural heritage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During the reign of King Jijeung General Yi Sa-bu occupation of the Usan Province near Ulleungdo and Dokdo to subjugate silla.

→ 우리의 문화유산인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의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울릉도와 독도일대에 있었던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에 복속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In addition, 'Section of Geography True Records of King Sejong', 'S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An article on the literature of the country' etc. Many in the literature contains consistent information about Dokdo.

→ 이 외에도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 많은 문헌에서 독도에 대한 일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any of these records is the history of Our Dokdo and Dokdo is proof that our territory is historical evidence.

→ 이러한 많은 기록들은 우리 독도의 역사이자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Dokdo is Korean territory was in evidence to support the fact that there is not only historical evidence, but also geographical evidence, international legal evidence.

Dokdo is Korean territory, support the fact that altogether in an indication that the historical evidence, geographical, not the Gulf of evidence, international law, there is enough evidence.

→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증거에는 앞서 이야기한 역사적 증거 뿐 만아니라 지리적인 증거, 국제법적인 증거가 충분합니다.

First of all, geographical evidence, Ulleungdo is 87.4 km away to the southeast and Among Japanese islands closest to the Dokdo is Oki island, Dokdo and Oki islands is 157.5 km away.

→ 먼저 지리적인 증거로는, 울릉도는 독도와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고, 일본의 섬 중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인 오키섬은 독도와 157.5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Through this we can see that geographically, our country is much closer than Japan.

→ 이를 통해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 next thing We'll explain is international legal evidence. 17th century, The two governments between teaching through the process of Ulleung Island and its adjacent islands, Dokdo is Korean territory was identified.

→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국제법적인 증거인데,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 간 교섭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인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In 1905, According to the Shimane government, B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Transfer attempt, Dokdo is not maintain the perception that their territory.

→ 1905년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하면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This can be found in official documen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cluding the Taejeongwan order in 1877.

→ 이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비롯한 일본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There is ample evidence of this. But still Japan is claiming their land is Dokdo.

→ 이러한 증거들이 충분한데도 아직까지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hy does this argument of Japan never stop? Because it is a cultural heritage that has great value both in the humanities and in nature.

→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문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Warm and cold currents meet in this area of the around Dokdo. Therefore, It is called a natural gas reservoir because plankton and fishery resources are plentiful and natural

gas reserves are abundant.

→ 독도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 수역으로 플랑크톤과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의 창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lso, Dokdo is the center of the rare animals and plants grow in abundance and ecology, at the same time, that serves as a critical as a military strategic importance of our territory.

→ 또한 독도는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는 생태계의 중심인 동시에,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Japan's Shimane Prefecture in 1905 through gazette number 40, and Dokdo as its territory to their territory based on only one.

→ 일본은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 하나만을 근거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ut that is to Dokdo as a military use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of Japan and It is a false claim from Japan that Korea had already been invaded by Japan.

→ 그러나 그것은 일본이 러일 전쟁 수행과정에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주권을 침탈당한 부득이한 상황이었음을 간과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when I saw any evidence, Dokdo is undoubtedly a Korean territory.

→ 여러분, 어떠한 증거로 봤을 때도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Takeshima Day to create up to ridiculous claims, Japan, South Korean territory should be admitted as the Dokdo as soon as possible. That requires the attention of people around the world.

→ 다케시마의 날 까지 만들어가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일본은 하루빨리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Our club can be recognized a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long as it is to continue to tap the truth.

→ 저희 동아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실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 독도 연설문(일본어 버전) 작성자 : 김수정

こんにちばみなさん、わたくしたちはどくとうのしゅごしんサークルぽとぽともうします。

→ 안녕 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독도지킴이 동아리 똑똑 이라고 합니다.

ほんろんにはいるまえに、ひとつしつもんをいたします。

→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みなさんは、どくとうがかんこくりょうどというしょうことどくとうのかちについてどれだけしっていますか?

→ 여러분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증거와 독도의 가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3ヶこくごでせいさくされたこのえいぞうをつうじてせかいがこくのひとたちが、どくとうがかんこくりょうどであることをめいかくにすることをいのりながら、どくとうにたいするしょうかいはじめます。

→ 3개 국어로 제작된 이 영상을 통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알기를 바라며 독도에 대한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かんこくのぶんかいさんであるみくにしきには、シルウのさとししょうおうのとき、いかくおっと(イサブ)がうつりょうとうとどくとういったいにあったうやまくにをせいばつしてシルウにふくぞくさせたというきろくがあります。

→ 우리의 문화유산인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울릉도와 독도일대에 있었던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에 복속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このほかにも、せいそうじつろくちりし、しんがたとうごくよちしょうらん、とうごくぶんけんぴこうなどおおくのぶんけんでどくとうにたいするいっかんしたないうをきろくしています。

→ 이 외에도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 많은 문헌에서 독도에 대한 일관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こうした、おおくのきろくは、かんこく、どくとうのれきしであり、どくとうがかんこくの

りょうどとは、れきしてきしょうこになります。

→ 이러한 많은 기록들은 우리 독도의 역사이자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どくとうがだいかんみんこくのりょうどというじじつをうらがきしてくれるしょうこにはさき  
だってかいわしたれきしてきしょうこのみならず、ちりてきなしょうこ、こくさいほうてきな  
しょうこもじゅうぶんです。

→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증거에는 앞서 이야기한 역사적 증거  
뿐 만아니라 지리적인 증거, 국제법적인 증거 또한 충분합니다.

さきにちりてきなしょうこでは、うつりょうとう(ウルルンド)は、どくとうととうなんに  
87.4kmはなれており、にほんのしまのうち、どくとうともしっかりいしまであるおきとう  
は、どくとうと157.5kmはなれているといえます。

→ 먼저 지리적인 증거로는, 울릉도는 독도와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고, 일본의 섬  
중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인 오키 섬은 독도와 157.5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これをつうじてちりてきに、かんこくがにほんよりはるかにちかいことをしることができます。

→ 이를 통해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つぎにせつめいするのは、こくさいほうてきなしょうこだが、17いきかんにちりょうこくせい  
ふかんのレッスンかていをつうじてうつりょうとうとそのふぞくとうであるどくとうがかんこ  
くりょうどであることがかくにんされました。

→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국제법적인 증거인데,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 간 교섭과정을 통  
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인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1905ねんしまねけんこくじによるたけしまにくみこもうとするころみまでにほんせいふは、  
どくとうがじこくりょうどがないというにんしきをいじしていました。

→ 1905년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  
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これは1877ねんだいじょうかんしれいをはじめとするにほんせいふこうしきぶんしょをつうじ  
てかくにんできます。



→ 이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비롯한 일본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このようなしょうこがじゅうぶん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まだにほんはどくとうがじぶんたちのとちだとしゅちょうしています。

→ 이러한 증거들이 충분한데도 아직까지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にほんのこのようなしゅちょうがやまなირიゆうはなにでしょうか？

→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そのりゆうは、じんぶんてきにまた、しぜんてきにおおきなちをもったぶんかいさんであるためです。

→ 그 이유는 인문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どくとうしゅうへんのうみはかんりゅうとだんりゅうがこうさするぞうえん水すいいきにプランクトンやすいさんしげんがほうふで、てんねんガスがたくさんまいぞうされているてんねんしげんのそうこちとすることができます。

→ 독도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 수역으로 플랑크톤과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의 창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また、どくとうはめずらしいどうしょくぶつがたくさんそだっているせいたいけいのちゅうしんであるとどうじに、ぐんじてきなせんりゃくてきょうしょうちとしてのやくわりをすいこうするじゅうようなかんこくのりょうどです。

→ 또한 독도는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는 생태계의 중심인 동시에,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にほんは1905ねんしまねけんこくじだい40ごうをつうじて、どくとうをじこくりょうどにへんにゅうしたというもの一ひとつのみをこんきょにじぶんのりょうどだとしゅちょうしています。

→ 일본은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 하나만을 근거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しかし、それはにほんがにしろせんそうすいこうのかていで、どくとうをぐんじてきにかつようするためにとったそちであり、とうじのかんこくはすでににほんにしゅけんをうばわれたや

むをえないじょうきょうイヨウムをみすごしたにほんのあやまったしゅちょうです。

→ 그러나 그것은 일본이 러일 전쟁 수행과정에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주권을 침탈당한 부득이한 상황 이었음을 간과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입니다.

みなさん、どのようなしょうこでみたときもどくとうはげんぜんたるだいかんみんこくのりょうどです。

→ 여러분, 어떠한 증거로 봤을 때도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たけしまのひまでつくりながらはなしにならないしゅちょうをてんかいするにほんは、いちにちもはやく、どくとうをだいかんみんこくのりょうどとみと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 다케시마의 날 까지 만들어가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일본은 하루빨리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해야합니다.

そのためにはぜんせかいじんのかんしんがひつようです。

→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わたしのサークルは、どくとうがだいかんみんこくのりょうどにみとめられるそのひまでけいぞくしてしんじつのとびらをたたくことです。

→ 저희 동아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실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 독도 : 진실의 두드림

악보 : 김원민, 김수정 / 노래 : 김예슬

작사 : 김예슬 / 작곡 : 현가영, 김태훈

[illegible]

나 우리민족 대한 의땅 그대들은 알 까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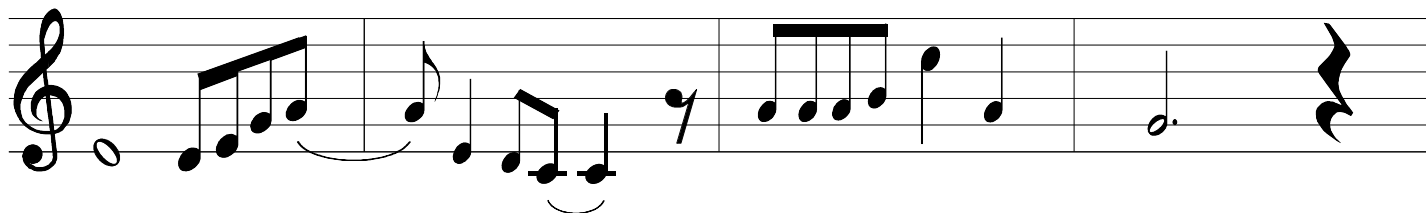
나 홀로 여기 있는 데 나는누구의 것인 가요- 만

기 록 들 에 서 나 를 언 급 하 고 있 지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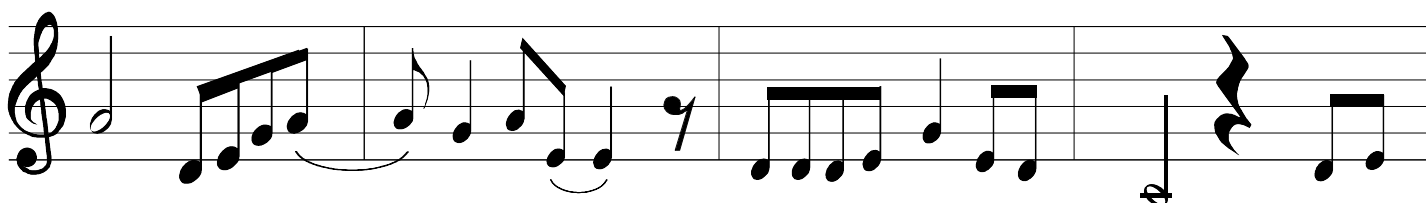
그대들의 무심함 나를다시 혼자 두 네 요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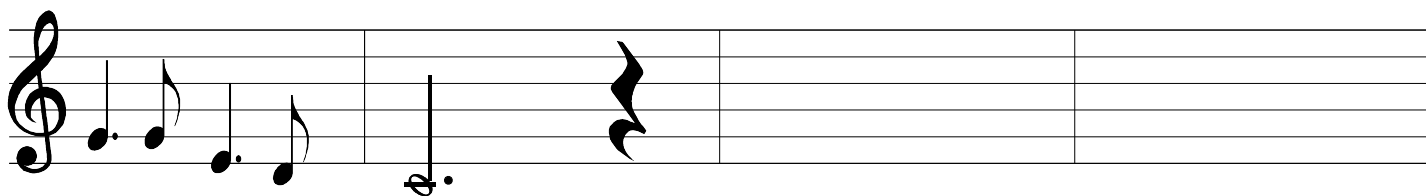
~간주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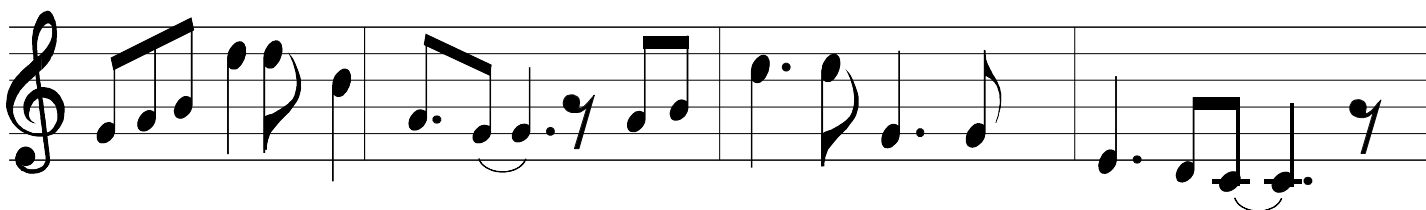
나 우리 민족 대 한 의 땅      그대들은 알 까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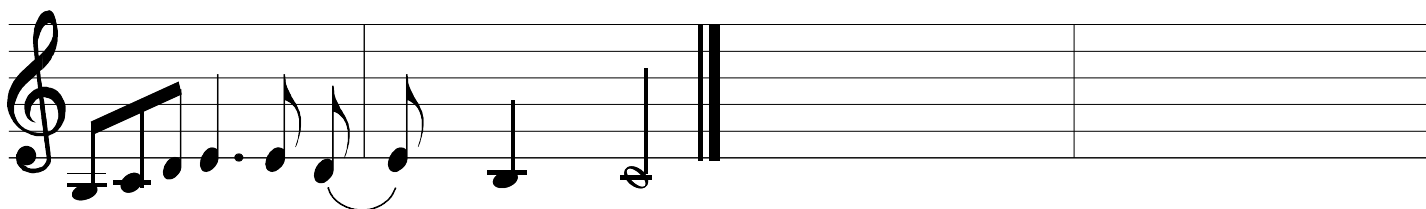
끝 나지 않는      이 싸 움      끝나기를 나 는 원      해요-      독 도



나 자 신 만      은



멈추지 말아 요      그 대      나는 한 국 영 토      니 까 요



진 실의문을 두 드      려      라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견학 보고서

일시	2018년 08월 7일 약 11:00 ~ 12:00	동아리 명	독독	작성자	김태훈
참석자	김수정, 김예슬, 김태훈, 김원민, 현가영				

견학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탐구하기 위해 독도연구소를 견학 하고자 함.</li> <li>■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교수님을 만나 다양한 지식들을 얻고자 함.</li> </ul>
------	---




견학내용	내용	비고(사진)
	<p><b>1. 독도 영유의 역사</b></p> <p><b>신라 시대의 독도</b> -1145년 [삼국사기] “512년 (지증왕 13) 이사부장군 우산국 복속” 기록되어있음.</p> <p><b>조선 시대의 독도</b>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 볼 수 있다.” 기록되어있음.</p> <p><b>2. 일본이 외면하는 독도의 진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본정부 공문서에도 독도는 우리영토로 기록되어 있다. [태정관 지령]</li> <li>2) 해방 후 독도는 우리 영토로 돌아왔다.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li> <li>3) 일본은 오랫동안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해왔다. [세종실록 지리지]</li> </ol> <p><b>3. 독도의 미래</b></p> <p><b>독도의 해저 자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독도의 미래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연료보다 공해가 적고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li> </ul> </li> <li>2) 해양 심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균 상태인 청정수로 마그네슘과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함</li> <li>-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식품, 음료수, 소금, 의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중임.</li> </ul> </li> </ol> <p><b>군사안보적 가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해 방위 거점으로서 역할과 한 러 일 의 지정학적 관계에서 한반도의 영해와 영공의 외연을 넓히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님.</li> <li>-일본 식민지 지배 첫 희생지 이었던 독도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임.</li> </ul> <p><b>경제적 가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한류와 통한 난류가 교차하는 곳이어서 어류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함. →황금어장 형성.</li> </ul>	   

느낀 점	<p>독도 연구소를 견학하고 난 후 가기 전 독도에 대해 조사를 한 것 보다 자세한 내용과 깊이 있는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일본이 인정하지 않은 진실과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또한 독도 연구소를 견학 하고 난 후 더욱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교수님께 활동 중 제작한 팸플렛과 배지를 직접 드리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도 동아리부원들에게 있어 뜻 깊은 경험이 된 것 같다. 앞으로 학생들이 영남대학교 독도아카이브 체험관에 대해 많이 알고 방문해 독도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면 좋겠다.</p>
------	--

# 인 터 뷰

인터뷰일시	2018년 08월 7일 독도 연구소 견학 당일	동아리 명	독독	작성자	김예슬
질문자	김예슬, 김태훈				

인터뷰대상	독도 연구소 교수님
-------	------------





내용	비고
<p>Q1. 독도에 일반 시민 거주를 허용하여야 하나 라는 주제로 저희 동아리에서 토론을 해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아리에서 '독도에 일반 시민 거주를 허용하여야 하는 가' 라는 주제로 진행한 토론 결과로는 '일반 시민 거주를 허용하면 안 된다.' 라는 결과가 나옴.)</p>  <p>→ 1) 독도에 대해서 자원고갈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자원고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x 하지만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가 많다 → 관광객들의 쓰레기로 인하여 해양의 오염화가 심해지고 그에 따른 생명체도 감소하게 된다. 2) 어민들의 어업 도구들로 인한 피해가 많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나(교수님)의 생각도 독도에 일반시민 거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p> <p>Q2. 독도 경찰 수비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로 일본이 독도에 와서 경찰들이 일본에게 한 역할이 있는지?</p> <p>→ 독도 경찰 수비대는 대부분 전투 경찰로 배치되어 있고, 아직까지 일본이 독도에 와서 경찰들이 일본에게 한 역할은 있지 않다.</p> <p>Q3. 독도 관련 행사로 학생들이 참여 할만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p> <p>→ 독도 관련 행사로 학생들이 참여 할 만한 것으로는 독도바로알기 대회(독도 발표대회), 독도 문예대전 등이 학생들이 가장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것 같다.</p>  <p>Q4. 독도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p> <p>→ 독도에 관한 정보를 담은 책은 대부분 전문서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위하여 제작된 독도에 관한 작은 책자나 독도재단에서 나오는 매거진 독도를 통하여 독도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다.</p>  <p>◀◀◀ 독도 홍보 활동을 위해 동아리에서 직접 제작한 독도 팸플렛과 독도 배지를 직접 교수님께 드린 후 사진촬영</p>	

느낀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의 교수님에게 직접 궁금했던 점들을 인터뷰하고, 우리가 직접 만든 팸플렛과 배지등을 통해 우리만의 방식으로 독도를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 뿌듯함을 느꼈음.
-----	--

# 독도배지 프로젝트

일시	2018년 06월 11일 ~ 2018년 07월 18일	동아리 명	독독	작성자	김수정
참석자	김수정, 김예슬, 김태훈, 김원민, 현가영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 배지 디자인부터 시작하여 직접 배지 주문을 함. 또한 배지 홍보지 제작과 선생님과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배지를 나누어 주는 활동.</li> <li>■ 선생님과 학생의 독도 인식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li> </ul>
------	---

내용	비고(사진)
<p><b>1. 배지 디자인 과정</b></p> <p>→ 배지를 이용해 독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함.</p> <p>→ 우리가 직접 디자인 하여 만든 것이 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직접 디자인함.</p> <p>→ 4차 디자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임.</p> <p><b>2. 배지 홍보지 제작</b></p> <p>→ 100개의 제한된 수량 때문에 선착순 신청을 받기 위해 배지 홍보지 제작함.</p> <p>→ 선생님 26분과 2학년 재학생 74명 신청 받음.</p> <p>→ 선착순 안에 들지 못하였어도 이러한 독도 배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 학생들과 선생님의 독도 인식을 일깨우고자 하는 목적임.</p> <p><b>3. 배지 결과물 받음</b></p> <p>→ 뱃지몰 사이트를 통해 배지 주문하여 총 100개의 수량을 07월 05일에 받음.</p> <p>→ 배지와 함께 나눠줄 문구 복사하여 직접 배지 커버에 붙여 07월 18일에 나누어 줄 것을 계획함.</p> <p><b>4. 배지 지급</b></p> <p>→ 07월 18일 선생님 26분과 2학년 재학생 74명 배지 지급 완료함.</p> <p>→ 배지 지급과 함께 독도 인식 함양을 위한 짧은 소개말을 함. (또 다른 팀명인 독도의 자음 독+도의 자음 ㄷ을 합쳐 만든 “뚝뚝” 뚝뚝... 진실의 문을 두드려 라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독도에 대한 강한 인식을 주었음.)</p>	<p><b>1차 디자인 시안</b></p>  <p>↓</p> <p><b>2차 디자인 시안</b></p>  <p>↓</p> <p><b>3차 디자인 시안</b></p>  <p>↓</p> <p><b>확정 디자인 시안</b></p> 

이름	활동 내용
김수정	배지 지급, 디자인 도움, 배지 홍보지 작성, 배지 신청담당
현가영	배지 지급, 디자인 담당, 배지 홍보도움,
김예슬	배지 지급, 디자인 도움, 문구 생각
김원민	배지 지급, 디자인 도움, 디자인 의견 제공
김태훈	배지 지급, 디자인 도움, 배지 홍보 도움

느낀 점	<p>배지 신청부터 배지 지급까지 쉬운 것이 없었지만, 배지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배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독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말할 때 마다 뿌듯했다.</p> <p>또한 학교에서 배지를 달고 다니는 10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보니 배지를 받지 못한 학생이라도 독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p>
------	---

# “똑똑” 자율동아리 독도 배지



## ▲ 독도 배지 디자인

1. “똑똑”이란 독도에서 독에다가 도의 자음 ㄷ을 붙여 만든 똑!  
“똑똑”... 진실의 문을 두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2. 똑똑 자율동아리에서 추진하는 100일간의 독도 프로젝트!
3. 위의 디자인으로 **70개 한정 수량**으로 독도 배지를 선착순으로 **무료 나눔**해 드립니다!
4. 독도 배지 신청 기간은 **6월 28일 18:00**부터 시작하여 수량이 끝날 때까지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 전에는 배지 신청을 받지 않고, 신청 기간 전 배지 신청을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5. 신청은 **010-3709-413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만약 휴대폰이 없다! 문자, 데이터 알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6월 28일 오후 6시 보충이 끝나자마자 **2학년 9반 김수정**에게 달려오시면 됩니다!)
6. 신청 양식은 **학년/반/번호/이름**으로 제한합니다.  
(만약, 양식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양식을 지켜 보낼 때 까지 신청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7. 배지는 7월 18일에 나눠줄 예정입니다!



# 독도 인식조사 결과

설문대상: 덕원 고등학교 교사 20명, 1,2학년 재학생 701명

설문 일시 : 6월 18일 ~ 6월 19일

질문 1: 독도에 직접 방문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결과: 있다(교사-2명, 학생-53명), 없다(교사-18명, 학생-648명)

독도에 직접 방문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설문대상: 덕원 고등학교 1,2학년 701명, 교사 20명  
총원-721명

질문 2: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증거를 한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는가?

결과: 있다(교사-19명, 학생-675명), 없다(교사-1명, 학생-26명)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증거를 한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는가?



설문대상: 덕원 고등학교 1,2학년 701명, 교사 20명  
총원-721명

질문 3: 독도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결과: 있다(교사-19명, 학생-662명), 없다(교사-1명, 학생-39명)

독도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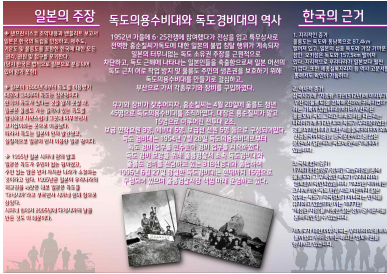


설문대상: 덕원 고등학교 1,2학년 701명, 교사 20명  
총원-721명

작성자: 김예슬

# 독도 팜플렛 프로젝트

일시	2018년 07월 7일 ~ 2018년 07월 19일	동아리 명	독독	작성자	현가영
참석자	김수정, 김예슬, 김원민, 김태훈, 현가영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독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팜플렛을 디자인·제작 함.</li><li>■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li><li>■ 기본 내용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표현으로 독도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함.</li></ul>
------	--

	<h2>내용</h2> <h3>1. 팜플렛 내용 구성</h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팜플렛 제작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함.</li><li>→ 독도에 대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직접 선택하여 조사함.</li><li>→ 여러 선택지 중 조원들의 투표를 통해 내용을 구성함.</li><li>→ 팜플렛을 읽고 올바른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도록 구성함.</li></ul> <h3>2. 팜플렛 내용 배치 및 디자인</h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동양적인 미를 살리기 위해 묵색을, 바다로 둘러싸인 섬 독도 표현하기 위해 바탕으로 파란색을 사용함.</li><li>→ 캘리그래피 형식의 큰 제목을 통해 '독도'라는 문구가 눈에 잘 띄도록 구성함.</li><li>→ 앞면에는 간결한 독도에 대한 정보와 임팩트 있는 문구를 통해 내용을 전달함.</li><li>→ 뒷면에 빨강색과 파란색의 대비를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을 형상화 함.</li><li>→ 추가적인 사진을 통해 팜플렛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함.</li></ul> <h3>3. 팜플렛 완성본</h3> <div></div> <h3>4. 팜플렛 게시</h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07월 19일 1,2학년 각반과 교무실 앞 안내판에 팜플렛을 게시함.</li></ul>	<div></div> <p>◀ 투표내용</p>
프로젝트 과정		
느낀 점	팜플렛을 구성 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각자 맡은 부분에서의 역할을 성 실히 수행해주어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 자료 조사과정에서 독도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팜플렛 게시이후 독도관련 질문을 받는 등 사람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는 것 같아 뿌듯했다.	

	이름	활동 내용
개개인 활동 내용	김수정	스토리 도움, 디자인 담당, 팜플렛 게시
	김예슬	스토리 담당, 디자인 도움, 팜플렛 게시
	김원민	디자인 구상, 자료조사, 팜플렛 게시
	김태훈	스토리 담당, 자료조사, 팜플렛 게시
	현가영	스토리 구상, 자료조사, 디자인 총괄, 팜플렛 게시

# ★ 독도 팜플렛 이미지 사진 ★



▲ 독도 팜플렛 앞장

## 일본의 주장

◆ 샌프란시스코 조약내용과 밴플리트 보고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당시 한국은 법적으로 일본으로 분류되어 있어 참가 못함)

◆ 일본이 1600년대부터 독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독도는 일본땅이다  
한국이 독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일본은 울릉도 가는 길목에 있는 독도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그곳에 머무르면서 개간작업하는 곳으로 이용했다.  
따라서 독도는 일본이 먼저 발견했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먼저 이용한 일본 땅이다.

◆ 1905년 일본 시마네 현의 알프  
일본은 독도가 주권이 있는 땅이었고,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한 나라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1905년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해로 일본은 독도를 '타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시마네 현의 땅으로 삼았다.  
시마네 현에서 2005년에 타케시마의 날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 독도의용수비대와 독도경비대의 역사

1952년 가을에 6·25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상을 입고 특무상사로 전역한 홍순철씨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 침탈 행위가 계속되자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 소유권 주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독도 근해에 나타나는 일본인들을 축출함으로써 일본 어선의 독도 근처 어로 작업 방지 및 울릉도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독도의용수비대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부산으로 가서 각종무기와 장비를 구입하였다.

무기와 장비가 갖추어지자, 홍순철씨는 4월 20일에 울릉도 청년 45명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였다. 대장은 홍순철씨가 맡고 15명으로 이루어진 전투대 2조, 보급 연락요원 3명, 예비대 5명, 보급선 선원 5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독도 경비대는 1954년 7월 28일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독도 경비 업무를 인수받아 경비 업무를 시작하였다. 독도 경비 보강을 위해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고 있는 318전경대와 통합하여 1996년 6월 27일 창설한 독도경비대는 현재까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릉경찰서장 책임 아래 운영하고 있다.

## 한국의 근거

1. 지리적인 증거  
울릉도는 독도와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고, 일본의 섬 중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인 오키섬은 독도와 157.5km 떨어져 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가깝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 등 역사 고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 역사적 증거  
삼국사기에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정복해 신라에 귀속시켰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부속도서를 마쓰리는 나라이기에 512년 부터 독도가 우리땅이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해,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헌원비고 등 많은 문헌에서 일관되게 독도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3. 국제법적 증거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간 교섭과정들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인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877년 '대정관 지형'을 비롯한 일본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들어왔고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독도 팜플렛 뒷장



# 토의록

토의일시	2018년 08월 04일 10:00~12:00	동아리 명	똑똑	작성자	김수정
참석자	김수정, 김예슬, 김태훈, 김원민, 현가영				

토의안건	1. 동해와 일본해에 관한 명칭 표기 논란
------	-------------------------

토의내용	내용	비고
	<p><b>동해와 일본해에 관한 명칭 표시</b></p> <p><b>한국 측 입장</b></p> <p>- 한 일 양국이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과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을 고려할 때 '동해'와 '일본해'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p> <p><b>첫째, 동해표기는 보편성과 역사성이 있다</b></p> <p>1) 바다 이름을 정할 때에는 그 바다와 인접한 국가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을 반영해야한다</p> <p>2) 동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동명왕편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약 BC59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동해가 등장한다.</p> <p><b>둘째, 동해 표기는 국제법적 정당성이 있다</b></p> <p>1) 세계의 바다이름의 표준을 결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수로기구 (IHO), 유엔지명표준화회의 (UNCSGN) 등에서는 2개국이상 공유하는 지형 물에 대해서 단일명칭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각각 사용하는 명칭을 함께 쓰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권고하고 있다.</p> <p>2)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사용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옳은 명칭 표기이다.</p> <p><b>셋째, 일본해는 일본제국주의의 흔적이 나타나있다</b></p> <p>1) 한국인에게 동해표기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간 (1910~1945년) 동안 불합리하게 빼앗겼던 한국의 이름을 되찾는 문제이다.</p> <p>2)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명도 일본어로 바꾸었다. 동해가 일본해가 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p> <p>3) 동해를 쓰는 것은 우리가 제국주의의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p> <p><b>넷째, 동해는 한국인의 삶의 일부분이다</b></p> <p>1) 다양한 문헌과 지도의 기록 속에서 단순한 지명으로 동해가 등장한다.</p> <p>2) 한국인의 애국가 첫 소절의 첫 단어가 '동해'로 시작 하는 것처럼 동해는 한국의 상징이자 역사를 의미한다.</p> <p>3) 동해는 현재까지도 인명 지명 상호명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상징으로 사용 되고 있다.</p>	<p>동해와 일본해에 관한 명칭 표시 논란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서로의 자료를 공유함.</p>  <p>▲ 토론하는 사진</p>

#### 다섯 번째, 시간이 갈수록 동해 표기가 세계인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다

- 1) 세계지도에 3%불과했던 동해 표기가 지금은 28% 넘는 세계지도에서 동해가 병기 되어 있다
- 2) 2000년에만 해도 한반도를 제외한 세계 주요 60개국의 지도는 97% 이상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하고 있었는데 2009년 한국 측 조사에 따르면 동해 병기가 약 28%에 달했다고 한다.
- 3)무엇보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2017년부터 버지니아 주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사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일본 측 입장

- 일본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일본해' 이외의 어떠한 명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 첫째, 혼란을 초래 한다

- 1) 현재 일본해는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표기로서 전 세계 지도의 95%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이므로 현 단계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에 관해 한국 측이 지명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둘째,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일본해 표시법이 아니다

- 1) 일본해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서양에 의해 확립된 명칭으로서 한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19세기 말 일본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일본이 동 명칭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강제하여 현재와 같은 일본해의 세계적인 확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 셋째,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명칭이다

- 1) 일본해는 태평양을 일본 열도가 분할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붙여진 명칭이며 일본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붙여진 명칭은 아니다.

	내용	결과
결정사항	동해와 일본해에 관한 명칭 표기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의 의견처럼 동해와 일본해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일본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출처	출처 -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동해관련 사이트, 지식백과, 위키 백과 출처 - 해외 동해표기 지도의 비율 증가 작성자 엠마 출처 - 전 세계 세계지도의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바꾸어요! 작성자 스쿨잼	

#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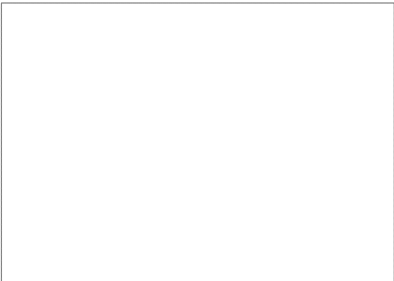
인터뷰일시	2018년 08월 5일 SNS를 통한 인터뷰 실시	동아리 명	독독	작성자	김수정
질문자	김수정				

인터뷰내용	동해에 거주하는 주민 인터뷰
-------	-----------------

내용	비고
<p>동해 주민</p> <p>해에 물어봐도 될까요</p> <p>1) 동해에 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 ex) 동해에 대해서 잘모르다거나. 2) 동해와 일본해 명칭 표기 문제점 있는지 3) 주변 친구들 또한 동해와 일본해 명칭 표기 문제점 있는지 4) 동해와 일본해 명칭 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5) 동해에 살면서 동해 주민에 관한 대내외적인 경계 등이 있는지(있다고 느껴지면 어디부분에서 그렇다고 느껴는지) 6) 동해 내에서 동해 알리미 라면가 이런 대회 같은 종류가 있는지 7) 동해 내에 거주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동해에 관한 관심이 많는지(이것을 느꼈다면 어디부분에서 느꼈는지) 8) 동해에서 살아가면서 불안감 등을 느낀 적이 있는지 (느꼈다면 어디부분에서 느꼈는지)</p> <p>오후 3:35</p> <p>김수정</p>	<p>Q1. 동해와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다른 지역 사람들)의 인식 ex) 동해가 어디 위치하는지 모른다, 동해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p> <p>→ 일단 동해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동해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냥 동해 바다? 라고만 알고 계시고 가끔 망상 바다나 무릉계곡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동해를 아시는 거 같고 조금 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p> <p>Q2. 동해와 일본해 명칭 표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한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p> <p>→ 명칭 표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제이며 동해와 일본해에 관한 것이면 아무래도 독도 영토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p> <p>Q3. 주변 친구들 또한 동해와 일본해 명칭 표기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p>
<p>인터뷰내용</p> <p>→ 주변 친구들도 저가 아까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그 정도까지로 알고 다들 자세히는 모른다고 하네요.</p> <p>Q4. 만약 동해와 일본해 명칭 표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p> <p>→ 자세히 그것에 대해 알고 있지는 않아서 크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거 같네요. (동해와 일본해 명칭 표기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린 후 진행) → 동해와 일본해의 명칭 표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는 몰랐어요. 법적으로도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물에 대해서는 각각 사용하는 명칭을 함께 쓰는 것이 법적으로 나타나있으므로 일본 쪽에서 동해 명칭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동해와 일본해 둘 다 명칭을 사용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p> <p>Q5. 동해 내에서 동해 알리미와 같은 대회 종류가 있는지</p> <p>→ 동트는 동해라는 대회가 있고 크게 동해를 알리는 대회는 없어요.</p> <p>Q6. 동해에서 살아가면서 불안감 등을 느낀 적이 있는지 (느꼈다면 어디 부분에서 느꼈는지)</p> <p>→ 제가 동해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동해에 살고 있는데 솔직히 크게 동해에서 불안감을 크게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p>	<p>동해 주민</p> <p>동해 주민</p> <p>1) 일단 동해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동해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냥 동해 바다? 라고만 알고 계시고 가끔 망상 바다나 무릉계곡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동해를 아시는 거 같고 조금 촌으로 보시는 거 같아요</p> <p>2) 명칭 표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제이며 동해와 일본해에 관한 것이면 아무래도 독도 영토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p> <p>3) 주변 친구들도 저가 아까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그 정도까지로 알고 다들 자세히는 모른다고 하네요</p> <p>오후 10:21</p>

특이사항 및 결론	동해 주민이지만 동해와 일본해 명칭 표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임을 깨달음 동해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보인다고 느낌 →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음.
-----------	---

활동사진 1 .



▷▷▷ 독도 배지 실제 사진



▶ ▶ ▶ 독 도 배 지 실 제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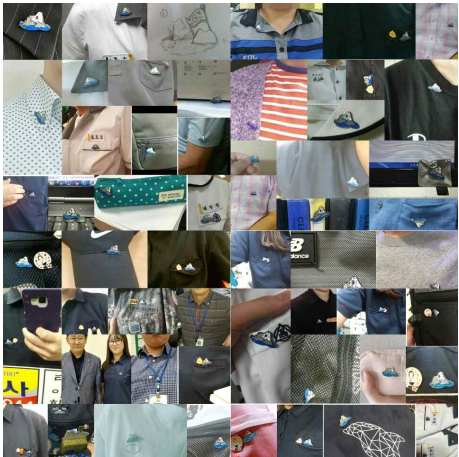


대구 과학 교육원 독도 전시관 견학



덕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부장 김수정 배지 인증 샷

독도 배지 인증 샷 약 70개 합친 사진 ▶▶▶



▶▶▶ 독도 팜플렛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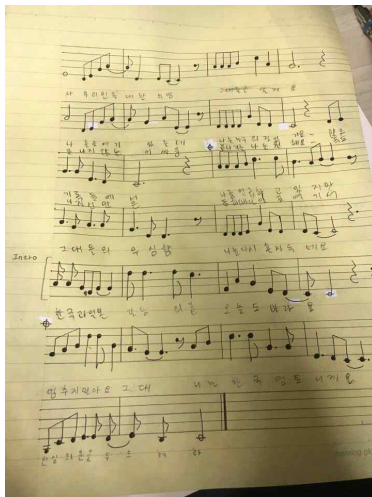
▷▶▷ 독도 팜플렛 학급 게시

## 활동사진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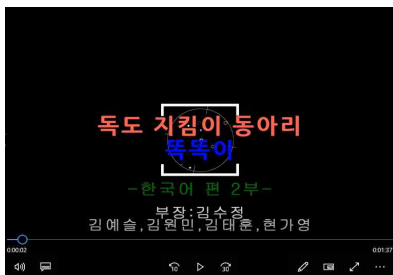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교수님께  
직접 만든 배지와 팸플렛 드리는 사진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 교육 중 ▶▶▶



▶▶▶ 독도 노래 작곡 및 작사 악보



→ → → 영상 중 캡처

